

포스트 HPAI 오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종오리 수급 현황 및 전망

오리산업 기반 위축 불가피
근본대책 마련 절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후유증 심각 종오리 사육수수 감소로 공급 부족 예상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4월 6일 전남 장흥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한달 이상 추가 발생이 없어 종식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1월 26일 최초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235일간 가금농장에서 106건, 관상용 2건을 비롯해 야생조류에서 234건이 검출됐고, 이로 인해 487농가에서 3천만수에 육박하는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이중 오리는 육용오리 96농가 184만9천수, 종오리 23농가 184천수가 살처분됐다.

특히 종오리의 경우 농가수로는 35%가 피해를 입었으며 사육수수로는 4월말 현재 산란종오리수가 전년대비 17.1%가 줄어들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때문에 당분간 육용오리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살처분 농가들의 입식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국내 오리산업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정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아시아는 물론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장기적으로 국내 오리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종오리를 수입하고 있는 영국 등에서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류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장기적으로 종오리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앞으로의 종오리 수급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종오리 수급 현황 및 전망



세계 발생으로 인해 GPS종오리 수급 차질 중장기적으로 종오리 수급에 악영향 우려

1980년대 국내 최초로 종오리가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식적으로 1995년 영국 체리벨리사와 공식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 국내 종오리 수입의 시작이었다. 이후 공급과잉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공백기가 있었으며 한국오리협회로 종오리 수입창구를 일원화 시킨 이후 2004년부터 영국 체리벨리사 PS종오리가 수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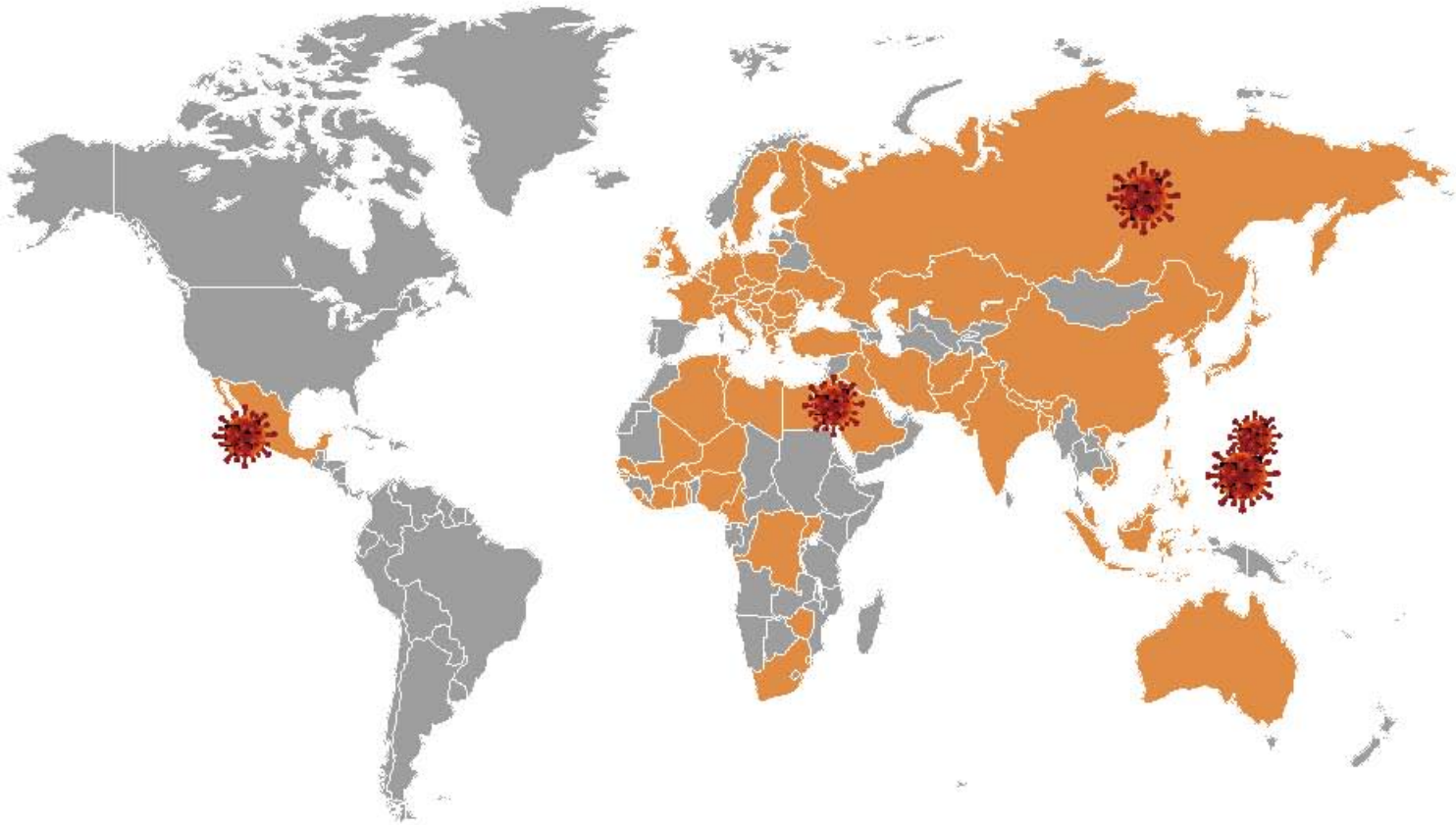
2004년 3만3천220수(암컷 D라인 기준)가 수입된 것

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는 프랑스 그리므드사의 종오리까지 12만4천594수가 수입됐다.

이후 매년 오리 수요 증가로 인해 종오리 수요량도 늘어나 2009년 27만1천수까지 증가했다. 특히 2010년부터는 기존 2개 품종 외에 오비아 종오리까지 가세하면서 2011년에는 종오리 수입량이 81만수를 넘어서기도 했다.

2011년부터는 한국원종오리를 통해 GPS종오리가 분

국내외 HPAI 발생 현황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가 (2020년 12월 말 기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시아	네팔,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포함), 캄보디아, 팔레스타인, 필리핀, 카자흐스탄, 일본, 쿠웨이트, 파키스탄
	아프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리비아, 우간다, 이집트, 짐바브웨,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라이베리아, 세네갈, 알제리, 말리
	유럽	그리스,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대공국, 마케도니아공화국, 벨기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독일,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메리카	멕시코
	오세아니아	호주

격적으로 도입되면서 PS종오리 수입량은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국내 PS종오리 생산 부족분을 채우는 수준에서 수입되고 있다.

한국원종오리 설립된 이후 2011년부터 수입된 GPS종오리는 첫째 1만5천수를 시작으로 매년 계약과 분양과 도태를 감안해 수입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원종오리 설립 이후 안정적으로 종오리 수급이 이뤄졌지만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종오리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GPS종오리를 수입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입 금지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3일 영국에서 고병원

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영국으로부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가금 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에 대한 수입 금지를 내렸다.

문제는 영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최근에는 3월 21일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완전 종식이 이뤄진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제 수입이 재개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기존 GPS종오리의 사육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PS종오리를 생산해 이를 보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4분기 중 오리사육마릿수는 391만9천수로 전년 대비 5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종오리 사

연도별 PS 수입현황

구분	PS			마리수 계
	체리밸리	그리므드	오비아	
2004년	33,220	-	-	33,220
2005년	114,290	10,304	-	124,594
2006년	151,580	8,000	-	159,580
2007년	49,580	123,540	-	173,120
2008년	-	179,762	-	179,762
2009년	113,850	157,360	-	271,210
2010년	199,980	217,250	10,262	427,492
2011년	-	700,240	111,107	811,347
2012년	194,700	-	180,798	375,498
2013년	10,450	-	19,000	29,450
2014년	-	7,000	105,130	112,130
2015년	-	-	24,000	24,000
2016년	7,480	-	-	7,480
2017년	-	-	-	-
2018년	7,370	-	20,000	27,370
2019년	12,320	3,257	-	15,577
2020년	-	-	-	-
계	894,820	1,406,713	470,297	2,756,253

* 암컷 마리수 기준

육 마릿수 및 육용오리의 입식 감소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종오리(6개월 이상) 마릿수는 2020년 3월 55만 9천 마리에서 올해 3월 37만 8천 마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올해 육용오리 입식 마리수는 4천647만7천수로 전년 대비 32.3%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산란 종오리 사육마리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올해 오리고기 도축수는 4천517만5천수로 전년 대비 32.5%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2022년 1월에 가서야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 GPS 수입현황

구분	GPS			계
	체리밸리	그리므드	오비아	
2011년	6,160	5,700	4,004	15,864
2012년	8,800	2,000	3,120	13,920
2013년	6,600	-	2,500	9,100
2014년	8,800	-	1,750	10,550
2015년	2,200	5,008	1,750	8,958
2016년	8,800	-	-	8,800
2017년	7,480	-	-	7,480
2018년	7,040	2,000	1,200	10,240
2019년	7,040	-	1,000	8,040
2020년	8,800	-	-	8,800
계	71,720	14,708	15,324	101,752

* D라인(암컷 마리수) 기준